

厚生經濟學的 人口模型의 設計

李 善 煥
漢陽大學校 商經大學

從來의 人口 經濟研究(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nge and economic growth)는 人口變化가 經濟成長에 미치는 影響 또는 逆으로 經濟成長이 人口變化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計量的 實證的 分析을 해왔다. 두 變化間의 關係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인가의 判斷은 지금까지 學者間에 論爭을 만들어 주고 있는 問題이다. 이 問題에 있어서 留意해야 할 點은 統計分析上 cross-section 과 time-series 分析에서 얻은 結果의 意味가 다르다는 點이다. 萬一前者의 資料에서 얻은 結果가 마이너스라면 이는 차라리 所得階層間의 不完全한 家族計劃의 施行을 暗示하는 것이다.

또한 巨視的 테두리 內에서 作成된 大部分의 經濟模型에서 人口成長은 外生變數로 取扱되어 왔다. 이것은 模型構築上의 簡略化를 위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欠陷을 나타내는 것이다. 嚴密히 人口成長은 内生變數(population growth as an endogenous variable)로 取扱되어야 한다.

人口成長은 内生變數로 取扱해야함은 바로 厚生經濟學(welfare economics)이 要求하는 바이다. 厚生經濟學은 經濟의 一般均衡體系內의 消費와 生産의 循環過程속에서 社會厚生의 極大(the maximization of social welfare)를 達成할 最適條件들(optimal conditions)을 追求한다. 이때의 決定單位(decision unit)는 個人(individual)이기 보다 家口(household)이며, 社會厚生函數의 모든 決定單位 즉 社會構成家口가 充足하여야 할 合理的消費行爲(rational consumer behavior)의 條件은 合理的 家族計劃(rational family planning)을 包含하여야 한다.

合理的 家族計劃은 理想的 혹은 最適家口員數(ideal or optimal family size)로 위에 提示된 厚生經濟學的 人口模型의 設計속에 들어가며, 이에서 얻어진 人口成長은 곧 厚生學의 概念에서의 最適人口成長(optimal population growth)이 될 것이다. 여기서 勞動이라는 生産要素로 들어갈 人口成長의 生産側面에서의 考慮는 實證的으로 技術發展率(勞動節約的 혹은 資本節約的)이 人口成長率을 壓倒함에 그의 影響은 模型體系內에서 一斷 考慮해도 無妨하다.